

자동차

현대차, 기대 이상의 미국 판매성장 실현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6월 미국 SAAR 1,747만대 (+5.2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3,779 (+4.6% YoY)

6월 미국 자동차 총 판매는 경기호조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지속과 영업일수 증가 (27일, +1일)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판매성장을 실현.

SAAR는 1,747만대로 전년동월 대비 +5.2% 늘어났으며, 1,700만대를 밑돌 것이라던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. SAAR는 네 달 연속 YoY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며, JD Power는 최근 18년 미국 판매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.

현대차 6.4만대 (+17.5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2,809 (-12.0% YoY)

SUV 모델 판매호조 (+37% YoY, 사상 처음으로 30,000만대 상회)에 힘입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YoY 판매성장을 실현. 지난 4월 출시한 코나 판매가 4,240대로 판매목표인 3,000대를 세 달 연속 상회했으며, 투싼 판매 또한 16,173대로 +61.7% YoY의 높은 판매 성장을 기록. 7월초 신형 쏘나타 출시 신차효과가 더해지며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 YoY 판매성장 지속 전망.

평균 인센티브 또한 -12.0% YoY 감소하며 세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음. 현재 재고정리를 위해 대당 \$4,000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는 구형 쏘나타의 판매가 중단되고 신형 쏘나타가 과거 신차 출시 시점과 유사한 \$1,000-2,000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, 하반기 평균 인센티브의 YoY 감소 폭은 -30-40%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.

기아차 5.7만대 (+0.8% YoY), 평균 대당 인센티브 \$3,834 (+11.6% YoY)

F/L 모델이 출시된 쏘렌토 (+24.0% YoY), 카니발 (+27.4% YoY) 판매는 선전했으나, 스포티지 (-21.3% YoY) 및 K3 (-10.3% YoY), K5 (-23.4% YoY) 등 노후화가 진행된 모델들의 판매부진 심화로 전년동월과 유사한 판매 규모를 실현.

평균 인센티브 또한 노후 모델들의 재고부담으로 +11.6% YoY 증가했으며, 올해 들어 여섯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음.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